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고암-담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고암-담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강종관륙해운상, 김영규 철도성 정치국장을 비롯한 해당부분과 건설에 동원된단위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몇해전 수산업발전에 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고암-담촌철길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승화시키고 자립

리한 고암지구와 담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행공정으로서 고암-담촌철길을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더웁히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과 많은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와 자력갱생

의 투쟁기풍으로 뚫고나가며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에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흰갈기물결만이 출렁이던 날바다 한가운데 아득히 뻗어간 철길케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

품을 보는것 같다고, 당에서 관심하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고암과 송전반도를 연결하는 철길이 완공됨으로써 당에서 구상한대로 담촌어촌지구건설을 빨리 다그치고 어촌지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원만히 수송할수 있는 대통령이 마련되

었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해제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석전만해상철길다리를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질적으로 하였고 평가하시면서 볼수록 흐뭇하고 자랑스럽다고, 조국의 동해기슭에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자력자강과

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견인불발의 영웅적투쟁으로 고암-담촌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건설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판문점의 봄은 위대한 태양을 노래한다

삼천리강산에서 세인을 격동시키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있다. 이 거창한 격변의 중심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안아온 판문점의 봄이 있다.

장장 70여년 지심깊이 얼어붙은 분령의 얼음장을 쟁쟁 가르며 이 땅의

판문점에 찾아온 민족의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다.

그러나 판문점은 해마다 봄이 와도 봄을 몰랐다.

갈라진 강토의 한복판에서 세월의 풍운을 다 닦고보낸 력사의 땅 판문점.

여기서 애국과 매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고 통일과 분령이 가장 오랜 기간 싸웠으며 전쟁과 평화가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가랑잎 날리는 바람소리에도 긴장이 떠돌고 상대를 겨논 대결의 총구가 사소한 정황에도 사정없이 불을 토하는 위험천만한 최전방.

전쟁이라는 시한탄을 함시적으로 품고있는 이곳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만한 사태는 또 그 얼마였는가.

분령의 통환을 더이상 참출수 없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피라케 웨치던 겨레의 통일념원이 뜨겁게 어려있는 력사의 현상이었다.

하긴만 봄은 오지 않았다.

끓어진 현맥을 이고져 남녘의 통일사자들이 죽음의 문턱과도 같은 판문점 분리선우에 의로운 걸음을 남겼건만 꽃방석이 아니라 차디찬 철창속으로 끌려갈 때 겨레의 마음속에 분령의 절통함만을 더해준 땅이었다.

이런 판문점에 화해와 단합의 봄, 평화변영의 희망찬 새봄이 깃들었으니 그날은 바로 2018년 4월 27일.

이날은 판문점의 어둠이 려명의 빛으로, 차디찬 려기가 혈연의 열기로, 얼어붙은 겨울이 따뜻한 봄으로 격변한 사변적인 날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분령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쪽의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겨레의 봄은 그이의 힘찬 발걸음에 실리어 꿈같이, 기적같이 이 땅에 찾아왔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중나온 남측대통령과 뜨겁게 손을 맞잡고 판문점분리선의 북과 남을 자유로운 만남이신 장원이 행성에 전파되던 그 순간 온 겨레, 전세계가 커다란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얼마 늦지도 않은 선이건만 반세기 이상 하리의 강토를 돌로 가르고 8천만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온 원한의 분리선을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가슴 벅찬 그 장거에서 겨레는 그처럼 고대하던 통일의 환희에 접하였다.

그이께서 넘으신 거룩한 발걸음소리에서 온 겨레는 민족분령의 군사분계선을 용납치 않으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뜨겁게 새겨안

지맥을 이어주고 8천만의 정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통일의 봄, 화해의 봄.

장쾌한 봄의 퇴성이 행성을 뒤흔든 력사의 땅 판문점의 대사변에서 우리는 민족의 장엄한 봄을 안아온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노래부른다.

있었다.

분령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으로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리신 새 력사의 출발신호총성을 들으며 8천만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정월 4.27의 대사변은 민족분령의 상징인 판문점에서부터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배한 결단과 크나큰 용기가 안아온 력사적화폭이었다.

절세위인께서 방명록에 남기신 친필에는 또 얼마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기상이 나래지던가.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고 바야흐로 희망과 변영의 밝은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뜻친, 몇만자의 글줄로도 대신할수 없는 심오한 뜻을 담아 세계앞에 장엄히 선언한 분령의 글말이었다.

지금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는 북남수뇌분들이 평화와 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을 담아 함께 심으신 소나무가 마스한 봄빛을 머금고 푸르려 설레이고있다.

민족의 기상과 절개가 비껴있어 우리 겨레 누구나 사랑할는 푸른 소나무.

그것은 단순한 수목이 아니다.

머지않아 통일된 강토우에 무성한 아지를 뻗치며 민족변영의 거목으로 설레이게 될 통일조국의 소중한 꿈이고 찬란한 미래이다.

사시정찰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통일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그대로 8천만이 함께 가꾸고 자손만대로 행복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부강변영하는 통일조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측대통령과 함께 거니신 그 짧은 산책길에서 조차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변영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던 판문점의 도보다리에도 력사에 길이 남을 애국의 통일세계가 뜨겁게 어려있다.

어제날 북과 남의 정전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종립국 감독위원회 성원들이 넘나들었던 도보다리를 지나 군사분계선표식물 바로 앞까지 현현히 나가시셨던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뜨겁게 고매친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가슴스러운 원한의 분계선표말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삼천리에 거머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변영의 력사를 펼쳐칠 불같은 의지이고 확신

이시였으리라.

판문점선언은 김련욱이렇게 태어났다.

분화구를 찾아 지심깊이 뚫어번지는 용암의 분출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듯 세기를 두고 갈망해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함몰에 안으신 우리 원수님의 태양보다 뜨겁고 열렬한 민족애,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에 받들려 장쾌한 봄우뢰가 터져올랐다.

4월 27일. 이날의 민족적대사변을 더욱 의의깊게 하여준것은 《평화의 집》 연희장에 펼쳐진 만찬이었다.

순간에 장내를 따듯하게 덥혀주시는 특유한 정감, 상대에 대한 지극한 배려심과 례의, 소박하고 격식없는 모습...

그이의 태양같은 인력에 온넉이 깔리어 끝없는 매혹을 금지 못했던 홀모의 목소리들이 지금도 정경게 들려온다.

《만찬장은 그야말로 혈육의 정이 넘치는 잔치집같은 분위기였다.》, 《친밀한 분위기와 웃음꽃이 핀 만

위대한 태양이 빛을 뿌려

태양의 파사로운 빛과 열이 있어 엄혹한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판문점의 봄은 민족의 대성인이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거어이 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충정으로 꽃피던 민족사의 봄이여서 더욱더 가슴뜨겁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게 된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파를 타고 행성에 울려 퍼질 때 8천만겨레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였다.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하는 겨레의 념원과 기대를 함몰에 지니시고 분령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나가시던 력사의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고매친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겨레의 최대속원인 통일을 위해 심장의 마지막박동마저 깡그리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애국의 위대한 한평생이시였으리라.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자신께서 있다고, 조국통일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시며 무려 4차례나 여기 위험천만한 판문점을 찾으시였던 우리 장군님의 절철한 그 통일념원이시였으리라.

더듬어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의 아픔이 채 가셔지지 않았던 6년전 바로 그 봄날에도 그이께서는 위험천만한 이곳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당시 미적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행을 두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떠들어대며 《특별사태》니 뉘니 하고 공포에 질려있었다.

하지만 그날에 단행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행이 위대한 장군님을

찬이었다.》, 《만찬장에서 북과 남의 우리모두는 별

써 통일을 맛보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력사의 그날 판문점에 위대한 자욱을 새기신 시간은 불과 12시간. 분령의 70여년에 12시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으로 분령과 대결이 배회하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봄이 왔고 조선반도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판문점은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김정은시대 민족대단합의 첫 회합이 마련된 뜻깊은 곳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판문점의 봄. 그것은 판문점만이 아닌 이 나라 삼천리에 화해의 봄, 변영의 봄을 안아온 민족의 대경사이다.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해온 8천만겨레에게 오품백과 무르익는 민족변영의 풍요한 가을을 예고해주는 민족의 봄, 조선의 봄이다.

판문점은 그 업적 길이 전하리

넓고 비애에 잠겨있는 온 겨레에게 승리의 신심과 통일의 확신을 안겨주실 불같은 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열연에서 출발한것임을 통일의 원수들은 결코 알수 없었다.

분령과 대결의 구름장이 무겁게 드리운 판문점에서 통일의 길도, 민족의 장래도 밝혀야 한다. 평화가 귀중하고 소중할수록 판문점에서 먼저 통일의 봄우뢰를 울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날의 판문점에 안고 가신 우리 원수님의 의지이고 결심이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불태워

판문점의 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담한 결단과 무비의 실천력, 불보다 뜨거운 겨레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통일의지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민족의 운명과 통일을 위한 원대한 설게도를 펼치시며,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지새우신 밤은 과연 몇백 몇 천밤이었으랴.

우리모두가 안온한 요람에서 행복의 단잠에 들 때 온몸을 아낌없이 다 바치시며 북남관계개선의 돌과구를 열어 나가시였다.

그 길에서 자손만대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담보할 강위력한 힘을 키워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2018년 새해의 첫 아침 8천만 겨레의 심금을 울리며 행성을 울려 퍼진 력사적인 신년사는 그대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실 절세위인의 통일애국의 뜻이 담겨진 위대한 설게도였다.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서 대 전환이 일어나고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이루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거어이 완성하실분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뿐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통일천 필비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떼지 못하시며 민족의 분령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의 한생을 뜨겁게 더듬으시였다.

반세기전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강위력한 보루를 마련하시려 최전연진지까지 나오시였던 수령님처럼, 선군의 보검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안아오신 장군님처럼 삼천리에 거어이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실 굳은 결심을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그 누구도 검출수 없는 불타는 총정과 열렬한 사명감을 안고 달려오신 6년이었다.

지금도 아버지수령님탄생 100돐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여 절세위인께서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시는 그날의 음성이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령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그날에 선언하신것처럼 민족의 평화변영과 통일을 위해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평화를 더욱 공고히 굳건히 지켜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판문점은 그 업적 길이 전하리

진것은 정세흐름을 확고히 주도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한 령도력의 힘있는 파시였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전쟁위험이 감돌고 적대와 중오가 극단으로 치닫던 북과 남에 따뜻한 화해의 봄이 기적처럼 찾아옴을 그 누구도 미처 몰랐다.

한과줄을 나는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마디마디 진정이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이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들 때 우리 겨레는 민족의 머리우에 비쳐드는 따뜻한 봄빛을 느꼈다.

우리의 대규모사절단이 평창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파견되어 지켜올린 화해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진정을 다시금 제부로 새긴 남녘겨레이다.

《그이를 뵈는 순간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이 어찌 평양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었던 한 남측에술인의 심정만이라.

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온 민족이 간헐한 념원과 크나큰 기대속에 기다려온 발걸음이었고 온 세계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발걸음이었다.

그이께서 한걸음으로 수십년간 우리 민족에게 버려진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준 굵단의 선, 분단의 벽을 단숨에 허무시였기에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삼천리강토와 온 세상을 세차게

움이다.

력사적인 그날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분령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의 분리선을 성큼 넘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활달하고 씩씩하신 발걸음을 따라 내 마음속에는 장엄한 노래선율이 울려오는것 같았다.

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그이께서 판문점분리선우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온 겨레가 격정

각 느끼던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오늘은 온 겨레가 다같이 체감하고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과 열과 애를 지니신 그이의 남다른 친품은 민족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온 겨레의 얼어든 가슴들을 녹이고 화해와 단합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이 땅에 꿈처럼 찾아온 화해의 봄, 세상을 충격과 열광에 휩싸이게 한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은 이렇듯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확고부동한 결심, 대담한 실천이 안아온 감동깊은 화폭이며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다.

지금 남녘과 해외동포들속에서는 《김정은위원장의 통근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날줄 지도자이다.》는 충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그것은 그이의 뛰어난 정치실력과 파감한 실천력에 대한 력사의 평가인 동시에 민족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레찬이다.

북남수뇌상봉의 그날 몸소 주저없이 판문점분리선 넘어 남쪽땅을 밟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가 그토록 감격의 눈시울을 적신것도 바로 그이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때문이었다.

가시발길, 지피발도 마다하지 않으실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은 만년장설도 녹일 태양의 빛과 열이 되어 삼천리에 화해와 단합의 봄, 평화변영의 새봄을 안아왔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의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온 겨레는 그이께서 지니신 태양의 인력에 온넉과 심장이 끌리어 들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그이를 따라가면 민족의 앞길에 평화도, 번영도, 통일도 온다.

지난 4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측에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몸소 예술인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북남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 온 겨레의 봄을 풍요한 가을로 이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봄은 향기그득한 꽃으로 아름답고 가을은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법이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태양의 열이 되고 자양이 되어 판문점에 봄이 왔듯이 태양의 파사로운 빛아래에 평화변영과 통일을 향한 민족의 봄은 오품백과 무르익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파감히 분기함으로써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바야흐로 삼천리강토에 부강변영하는 통일공국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

이다.

발걸음이다. 민족의 휘황한 미래는 령도자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일어난 북남관계개선의 력사적인 사변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을 이끄실 통일의 령수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그이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민족의 무궁변영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설레인다.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세

계를 앞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해나가는 정의의 강국, 이것이 바로 통일조국 이고 온 겨레가 그려보는 민족의 미래이다. 그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뿐아니라 세계정치체제의 흐름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주도하고계신다.

척척척... 그이의 힘찬 발걸음을 따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마중오고

있다.

고성호

군건설사상과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실전능력을 소유한 필승의 강군으로 만들며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최전연. 최전방초소들과 전투훈련장들, 첨단무기시험발사장들을 찾got찾으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완성과 국가방위력강화에 바치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 나날 인민군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과 전략적술적안목을 높여주시고 전군에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무력으로 담보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군사정치과업수행정형에 대하여 분석총화

설도 우리가 다 말자!》, 《인민을 돌자!》라는 인민군대의 구호에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숭고한 행보를 다하는 인민군대의 전모가 그대로 비껴

있었다. 그이께서는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가 조국보위

다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강군이 있고 강군이 있어 나라와 민의 부강변영이 담보된다는 진리를 자기의 력사와 전통에 자랑스럽게 새겨가고있다. 박진혁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올리신 절세위인의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고 그 발걸음소리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온 강토가 세차게 진동하는듯 한 느낌이 든다.

긴긴세월 분령과 대결의 악몽속에서 해매이던 민족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발걸

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온 민족이 간헐한 념원과 크나큰 기대속에 기다려온 발걸음이었고 온 세계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발걸음이었다.

그이께서 한걸음으로 수십년간 우리 민족에게 버려진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준 굵단의 선, 분단의 벽을 단숨에 허무시였기에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삼천리강토와 온 세상을 세차게

움이다.

력사적인 그날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분령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의 분리선을 성큼 넘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활달하고 씩씩하신 발걸음을 따라 내 마음속에는 장엄한 노래선율이 울려오는것 같았다.

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그이께서 판문점분리선우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온 겨레가 격정

시뮬음

위대한 빛발따라 통일로 가자

신홍국

장벽을 허무는 메아리

고요한 정적과 긴장을 깨치며
판문각계단을 내려 분리선으로 향하
시는
경장의 거룩한 발자국소리
척척척... 대지를 쿵쿵 울린다

짧으나 긴 순간이었다
온 세상이 가슴조이며 시선을 고정
시켰다
수십억의 심장들
그이의 발자국소리에 맞춰 세 차게
뛰고있었다
그때 그 시각 지구에 들리던것은
오직 그 소리뿐이었던듯

전쟁을 모르고 살아갈 겨레의 삶의
터전
피터운 한가슴에 안으시고

김정은장군! 마침내
분리선을 결연히 밟는 순간
강도가 진감했다
그이의 발밑에서
장벽은 소리내며 무너져내렸다

외세가 그어놓은 치욕의 분단선
그 저주로운 흉물에 치위 당한
겨레의 아픔과 설음이

쌓였던 미움과 원한이
모두 녹아 걱정의 샘으로 솟는듯

환희의 눈물이 앞을 가리웠건만
누구나 똑똑히 새겨안았다
그이 가시는 앞길에
그 어떤 차단봉도 내릴수 없음을
그이 따르는 길에
결코 두려움이 있을수 없음을

오,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그이 우리르며
우리 겨레 걱정에 울고웃으며
분리선없는 판문점을 오고갔다
위대한 경장의 거룩한 보무를
8천만이 따라나섰다

손길로
판문점선언에 친필존함 남기실 때
동토대는 화창한 봄처럼이었다
삼천리는 감격의 도가니였다

긴긴 세월
날은 밝아도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꽃은 피도 진정한 봄이 없던 판문
점에
해가 솟아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올
랐다
평화의 봄!
번영의 봄!

통일의 봄!
해빛처럼 밝은 미소 뿌리시며
김정은장군 판문점에 서게시였다
숲속의 일만꽃들 향기날리고
우르르는 눈빛들은 젖어있었다
경모의 마음엔 북과 남이 따로 없었다

아, 꿈만같은 판문점의 그 해빛
위대한 김정은장군!
지리한 분렬의 장막 밀어내며
강도의 지맥과 민족의 혈맥 이어주며
거룩한 태양으로 빛나시였다!

우러러 산천초목도 환희에 설레이고
우러러 남녘로소 감격에 잠 못드노라
민족의 은인을 만난 감격과 행운
4월의 전설되어 꽃피나는 삼천리에
김정은은봄열풍 세차게 굽어친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그이 온 겨레의 가슴에 새겨주신
금옥같은 희망의 글발
격동의 6. 15시대 화풍우에 계양되어
겨레를 통일미래에로 향도하거니

가자 겨레여 손잡고 그이의 뜻을
따라
가자 동료여 발맞춰 그이의 신념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나 이제부터다
민족자주의 억센 기둥세우며
민족단합의 튼튼한 성들을 쌓으며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4월 27일!
온 겨레는 심장에 새겼어라
금단의 땅 판문점에 나오시어
저주로운 분렬선을 단호히 부정하신
민족적영웅의 거룩한 영상을

삼천리에 통일의 봄을 불어오신
강철의 령장의 웅건한 기개를

체제와 리념우에 민족을 놓으시고
숭고한 동포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통일번영의 미래를 펼쳐주신분
전쟁과 대결의 력사우에 화해의 봄 펼
치고
국제정치흐름에 지각변동을 안아오신분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우리 겨레 하나로 될 번영하는 통일
강국
빛나는 래일을 약속하며 축복하며
오오, 환희로운 김정은통일시대
위대한 서막은 올랐다!

시뮬음

통일의 새로운 신호탄이 올랐다

판문점의 신호총성

김태룡

하늘을 깨치는 퇴성벽력인들
이보다 우리 겨레의 가슴
세차게 뒤울릴수 있으랴
신호탄이 올랐다
판문점에 통일의 신호총성이 울
렸다

통일을 불러 평화를 불러
우리 원수님 력사의 출발선에서
엄숙히 울리신 신호총성
오, 그것은 천하를 격동시킨 판문점
선언
대결과 불신의 동토대 녹이는
장쾌한 봄날의 눈썹이는 시작되었다

아, 민족사가 맞이한 이 격동이 감격
대범한 용단 무비의 담대한을
크나큰 가슴에 지니신 원수님
삼천리를 진감시킨 신호탄으로
통일번영의 대로에 온 민족을 내세
우신
력사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어

오, 그 신호총성은
두터운 분렬장벽에
파열구를 내는 통일의 퇴성
대결의 장벽을 날려보내는
민족화해의 메아리

강국의 존엄 민방에 떨쳐갈
태양조선의 존엄과 긍지
벌써부터 가슴가득 안겨오누나

이 땅이 하나가 될 그날을 향하여

장엄한 령장의 첫 자욱 때신 우리
원수님
그이의 친필 가슴에 새겨안고
겨레가 떨쳐나섰다
삼천리가 따라나섰다

그처럼 환희의 순간 새긴적 있었
습니까

원한서린 판문점을 굽어보시고
세월에 녹이 쓴 군사분계선
표말도
가슴아프게 쓸어보실 때
은 삼천리가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 순간에 분렬세월은 깨지는듯
민족의 운명 책임지신 거인의 뜻
새였습니다

통일단상으로 이어진듯
넘치는 환희에 가슴부풀어
눈곱적시던 우리 겨레입니다

아, 산책길은 길지 않았어도
북과 남의 온 겨레 보듬어
우리 원수님
통일조국을 수놓으신 길입니다

분리선은 더는 없다

김영일

세인의 눈길이 쏠린 판문점
겨레가 지켜본 초긴장의 순간이었다
분리선을 향해 내딛으시는
원수님의 담대한신 발걸음소리
세계가 들은 력사의 순간이었다

남의 나라 국경은 넘을수 있어도
제 나라 강토는 마음대로 오갈수
없어
세월의 비애가 무겁게 얹혀있는
분리선
겨레의 혈맥도 이 땅의 지맥도
하늘마저 갈라놓은 비극의 분리선

그 분리선을 넘으신것이다
아픔과 고통, 대결의 세월에
종지부 찍으시는 거인의 발걸음
이어
피와 눈물을 뿌려도 넘지 못했던
금단의 선을 단호히 부정하시며
성큼 넘어신 김정은원수님

분렬장벽이 장쾌하게 부서져나가는
소리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막혔던 피줄이 열려 피가 뿜듯
일시에 사뭇쳐 터져오른 열광의
파도

겨레의 가슴에 맺히고 쌓인
울분의 응어리가 깨어져나가는
소리
하나로 합쳐지는 이 땅이 하늘이
번개를 일으켜 우리를 터뜨려
위대한 사변을 고하는 소리

아, 이 강토에 더는 분리선이란
없음을
북과 남이 힘 합치면 못해낼 일
없음을
단 한걸음으로 증명하신 령장의
발걸음
그것은 조선이 하나임을
은 세상에 선언한 통일의 봄우뢰
였다

그이의 걸음걸음을 따라서며
겨레의 마음도 달렸습니까

한어름 피약별에도 등골에 소름
치고
적대의 눈초리들 총구뒤에 번득
이던 곳
수십년세월 봄은 어김없이 왔어도
대결의 얼음장은 단 한치도
녹지 않았던 판문점

하나 너 오늘 화창한 봄빛안고
푸른 가지 창공에 펼쳤구나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
주는
판문점의 한그루 소나무여

은 강토 온 겨레가 환호하며
걸음걸음 그이를 따라서던
4월 27일
원수님은 8천만겨레와 함께
통일삼천리를 걸으시였습니다!

등뽕이 물을 부여주실 때
꿈이더냐 생시더냐!
긴긴 세월 봄을 모른 아픔의 땅에
환희의 새봄이 드디어 태동하는
소리
백두에서 한나까지 억만의 초목들
기쁨에 겨워 설레었더라
대동강과 한강의 푸른 물이
환희에 넘쳐 출렁이었던라

그날에 포근히 덮어주신 흠은
남녘겨레에게 주시고싶었던
혈육의 진한 정이었다
부어주시던 그 물은
평화번영의 삼천리 꽃피우시는 생명
수였다

통일의 종착점을 향하여

김송림

장엄한 새 력사의 서막을
그이는 일필휘지 친필로 여시였다
방명록에 남기신 불멸의 글발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통일을 불러 재가 앉은
겨레의 가슴가슴에
감격으로 안아보는 희망의 글발
비극과 고통의 어두운 장막 밀어내며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온 환희의
글발

거룩하신 위용 담대한 기상이 비껴
살아 맥동치는 위인의 글발이여
활달하신 그 필체에 다 어려오누나
분렬세월 끝장내실 그이의 억센 의지
그이 펼쳐가실 통일강국의 날과 달
들이

다가올 미래는 얼마나 벽한것이라
성스런 글발에 비쳐진 평화번영의
새시대
민족의 억센 힘 세계를 앞서가며

오, 그 진폭에 드디어

오늘도 가슴뭉클 따라섭니다
분렬의 난마타를 헤쳐가시듯
우리 원수님 걸으셨던
판문점의 산책길

통일삼천리를 걸으셨습니다

리송일

이 땅에 판문점이 생겨
적혀진 자욱은 얼마였겠습니까
하건만 8천만 우리 겨레모두가
분분초초 따라서며 열광하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
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
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
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북남관계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온 민족
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철도이
며 북남관계개선
의지를 가능하는
시금석이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은 그 누가 보장해줄수 없
으며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 지
켜야 한다. 우리 겨레가 민족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
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
를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
체의 힘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

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개선에 절실한 리해판
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조선민족이
며 갈라진 강토와 혈맥을 잇는것
을 최대의 숙원으로 간주하고있
는것도 우리 민족뿐이다. 분렬의
형이 더욱 짙어질것이다. 북남관
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
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위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할뿐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
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극면을 열
어나가야 할것이다.

것은 북남관계개선의지를 가능하
는 시금석으로 된다.
민족자주의 림장에 서지 못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의 길로 나간다면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전쟁위
험이 더욱 짙어질것이다.

북남관계개선 의지를 가능하는 시금석

자주권은 그 누가 보장해줄수 없
으며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 지
켜야 한다. 우리 겨레가 민족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
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
를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
체의 힘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

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개선에 절실한 리해판
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조선민족이
며 갈라진 강토와 혈맥을 잇는것
을 최대의 숙원으로 간주하고있
는것도 우리 민족뿐이다. 분렬의
형이 더욱 짙어질것이다. 북남관
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
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위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할뿐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
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극면을 열
어나가야 할것이다.

오늘도 가슴뭉클 따라섭니다
분렬의 난마타를 헤쳐가시듯
우리 원수님 걸으셨던
판문점의 산책길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리정표

산과 들마다 온갖 꽃 만발한
화창한 봄날에 력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
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
일운동사에 특기할 민족사적사
변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물론 전세계가 력사적인 이
번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찬
동하면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
영,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하
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북과 몇달전인 지난해말까지만
하더라도 조선반도에는 철과 철,
불과 불이 당장이라도 맞부딪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엄혹한 정
세가 조성되어있었다. 온 민족과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
의 정세를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
보았다.
하지만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드러운 전쟁의 검은 불구름을 가
서주시기 위해 불분불류의 로고
와 심혈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
지와 대담하고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손을 맞잡
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로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게 되
었다.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
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
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
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를 앞당겨나갈것을 엄숙히 확약
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발

표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리정표는 세워졌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이
력사적리정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
겨나갈 신심에 넘쳐 힘차게 나아
갈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시련이
란 있을수 없다.

판문점선언에는 조선반도에서
철에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
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
소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공동
으로 노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
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
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
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북과 남이 지상과 해상, 공중

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
적긴장과 충돌의 권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를 전면중지하고 서해 《북방한
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
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
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
워나가는 등 여러가지 군사적보
장대책을 취해나갈 때 군사적
긴장상태도 완화되게 될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
해온 북남관계의 불미스러운 과
거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
합,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준 판문점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갈 때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도 오고
평화번영의 밝은 아침도 오게 될
것이다.

림명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권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에서는 주제107(2018)년 5월 24일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핵시험장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강도들을 폭발적으로 분락시키고 강도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사성물질투출현상이 전

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데 따라 핵시험장주변을 완전히 해체철거된다.

핵시험장의 2개 강도들이 임의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리용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이 국내외자들과 국제기

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호적인 노력이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되었다.

핵시험중지의 세계적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다.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권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장을 폐기할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권회의 결정이 발표된 후 핵시험과 관련한 모든 준비와 공사들을 즉시 중지하고 단계별로 폐기작

업을 진행하여왔다.

핵시험장의 강도들과 관측소, 지휘소, 연구소들에 전개되어있던 각종 설비들과 정보통신 및 동력계통들, 건설 및 운영장비들이 해체철거되었다.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이 24일에 진행되었다.

핵시험장폐기상황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의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취재촬영하였다.

순차적으로 투명성있게 진행되었다.

작업이 완료된 다음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 발표되었다.

핵시험장의 폐기는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적립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북남관계에 질하는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노력해나갈때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역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전략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공화국이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

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다. 뿐만아니라 인간쓰레기들의 대결망동을 목인하였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바라는은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16일로 예정되었던 북남고위급회담도 진행될수 없게 만들었다.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연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북남대화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전쟁

연습소동이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인간쓰레기들의 대결망동을 목인하는것도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으로도 용납될수 없는 동족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만인이 지지찬동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리행될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실행이 지연되고 무례무도한 사람들과 마주앉아서

진정성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내성공민들에 대한 보수세력의 집단유인람치범죄의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 내외의 규탄여론이 비발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공화국은 직설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대답을 통하여 그들을 지체없이 송환하지 않으면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심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에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며 심히 오만불손하게 처신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건의 모략적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후에도 《국회》의 교동일위원회에서 《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곳에 와서 정착해 생활하고있다》, 《송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있다》고 강변하였는가 하면 공화국의 송환요구에 대해서도 《기준립장과 다름바 없다》고 뻔대면서 《남북이 합의한 리산가족상봉행사에 영향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과격치한 언사를 늘어놓았다.

청와대관계자도 《지금까지 견지해온 립장에서 변화된것이 없다》고 하면서 강제로 집단유인람치된 공화국내성공민들에 대한 송환기부의사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당파의 반인륜적인 강제집단유인람치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에 와서까지 그들의 송환을 거부해나서는 현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범죄를 저지른 보수적패당과 조금도 다름바 없으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의

문시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남남관계를 주관한다고 하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며 《자유의사에 따른것》, 《송환은 검토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 등 보수세력들과 한목소리를 내고있는것은 만인의 격분을 자아내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법한 아량과 성의있는 조치에 진정성있는 자세로 화답해나설 대신 미국과 공중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국회》마당에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우는가 하면 박근혜당파의 반인륜적범죄까지 목인하러들며 뻔뻔스럽게 늘어가고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이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층 민심에 대한



남조선에서 5.18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광주대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자료를 새로 공개되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당시 전두환역도의 시위진압작전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미군사령관이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해준 사실이 담긴 미국무부의 비밀문건이 이번에 공개되었다. 비밀문건을 분석해보면 광주항쟁의 진행상황과 공수부대의 잔인한 학살만행 등에 대해 미국은 모든것을 다 알고있었다. 실지로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광주시를 장악한 후 방송기자회견에서 광주진압작전은 미국이 승인한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밀문건에는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이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강한 성명을 발표할것이라고 전두환을 압박했던 사실도 담겨

있다.

지금껏 미국은 광주항쟁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지방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 잘 몰랐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이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광주대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로서의 미국의 정

간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해 《광주특위》가 조직될 때 남조선 《국방부》는 511연구위원회라는 비밀조직을 내왔다. 이 조직이 광주대학살만행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입막음 등

역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짐승도 낯을 붉힐 류철참극을 조작하고도 아무런 사죄와 반성은 없이 그 진실을 덮어버리려 한 후안무치한 미국이 아닐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광주대학살만행을 저지른 전두환과 그 잔당들, 그 바통을 이어 받은 보수세력들이 갖은 권모술수로 민심을 기만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발악한 그것이다.

광주의 비밀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것이 밝혀졌다. 1995년 특별수사사태에는 현직검사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했다. 이는 문건도 확인되었다. 광주에서 그토록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쿠우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죄과를 덮어버리기 위해 광주의 항쟁시위대를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로 몰아붙여왔다. 결국 38년간이나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당파들을 포함한 친미우익보수세력들에 의해 민심이 기만당해왔

고 광주의 진실이 가리워졌다. 이것이야말로 피흘리며 쓰러진 광주항쟁용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아무때건 밝혀지기마련이다.

지금 광주인민봉기 38돐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조선당국과 정계, 사회계에 이 광범히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가 《5.18에제지》를 통해 광주가 겪은 상처를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공조사단을 꾸려인권유린실태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무총리》도 기념사에서 9월부터 5.18민주화운동

매국협정폐기를 위한 굳센 의지

— 남조선단체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요구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와 더불어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에 대한 민심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때 대한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50여개의 진보단체들을 망라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남북협상이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것만큼 일본과의 군사협력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일본군주주의부활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불러오는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대표적

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러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조직 전개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투쟁에 적극 협력치나선것은 일본의 체질적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적패당과 아베일당의 범죄적공조결탁의 산물로서 동족사이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군주주의부활과 조선반도제정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다.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민심을 외면하고 그 무순 《미패지향적인 관계》와 《돈독한 신뢰구축》이라는 개나발들을 붙여대면서 일본군성노에 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치렬리는 과거죄악들을 목인해주었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일본과의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대표적

인 외교안보적폐》라고 하면서 그의 폐기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확약한 오늘 이러한 매국협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아시아인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북남화해와 긴장완화국면에서 《북의 위협》을 구실로 맺은 매국협정이 존재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금 은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판문점선언의 리행과 적폐청산에 대해 말로만 떠들거지 아니라 보수세력들이 천년속적과 맺은 매국협정을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협정폐기를 집권공약으로 내세웠던 남조선의 현 당국은 판문점선언이 립행한 새로운 정세와 환경에 맞게 박근혜당파의 적폐인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판문점선언 역행하는 <맥스 썬더> 훈련 즉각 중단하라 !》

—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 북침전쟁연습중지를 요구 —

지난 16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 썬더》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단체들은 《(한) 미당국은 판문점선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난 11일부터 최신에스텔스전투기 (F-22 램퍼)를 사상 최대규모로 동원하는 《(한) 미련합공중전투훈련 (맥스 썬더)》를 강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대화상대를 자국할 군사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지속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15일에는 민중당 성원들이 광주공공기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침략전쟁연습, 《맥스 썬더》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미국남조선연합공중전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었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단

죄하였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판문점선언의정신, 제대로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론평을 통해 《정상회담까지 한이 마당에 군사훈련을 오히려 전쟁위기시점보다 확대하려는것은 남측들이 신중히 리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홍준표의 추악한 자화상 - 오명대사전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하며 끝없이 놀아대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대결광판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갖가지 오명들을 통해 신랄히 야유조소하고있다.

《흥고집》이나, 《흥카멜레온》이나

홍준표는 코흘리개처럼 영리 머리와 고약한 속통이 그대로 내뱉쳐서인지 외형조차 서리맛은 무당벌레같이 언제 한번 날달에 뗏뗏이 나서보지 못하고 소학 교시절 그리도 탐내던 출판장 한 번 해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홍준표가 다 망해가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어 만인의 지탄을 받고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홍준표는 그에 대해 그 무슨 박달밭땅이 같은 《정치적고집》과 토방들같이 불변한 《정치적소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흥고집》이라는 별명을 풍유병자 썩 자랑하듯 늘어놓곤 한다.

실지 그리한가. 홍준표는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의 검찰노릇을 하면서 극악한 교형리, 사냥개기질을 발휘한 것이 김영삼역도의 눈에 들어 정계에 첫발을 들여놓았으며 그후 리명박역도에게 가붙어 《형님》, 《선배》라고 낮간지처럼 괴어 울리며 역도의 BBK주가조작사건을 무마시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준 대가로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표의 갑투를 련속 뒤집어썼던자이다.

날과 달이 바뀌어 권력의 추가 박근혜에게 향해지자 이번에는 《박근혜는 (유신)의 잔당》 리명박집권시기 남조선에서는 홍준표를 《명박도》로 가는 《배표》로 야유한 유모아가 창작되어 널리 류행되었다.

온갖 부정협잡행위를 일삼으며 권력야욕실현에 미쳐돌아간 이자의 범죄행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모아이다.

정계에 발을 들이던 첫날부터 온늘에 이르기까지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후보추천권을 통간질하면서 수단US\$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과 성완중으로부터 10여만US\$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아먹은 사실, 부산저축은행의 대형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실 등 홍준표가 관여한 귀퉁이한 대형부정부패사건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부정부패왕초 - 《홍돈표》

2008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하는 기간 《국회》특수활동비를 매달 매내어 자기 녀편내에게 공저준 사실도 성완중사건을 변명하던 끝에 본의아니게 벨아놓은 범죄이다. 비리와 횡횡이 체질화된 나머지 큰 범죄를 가리운다는노릇이 숨겨진 다른 범죄를 스스로 드러내놓게 되었던것이다. 당시 야당들과 사회각계에서는 《죄를 가리우기 위한 변명이 스스로를 묶는 울가미가 되었다.》, 《제가 살았다고 안해줄 공범자로 만든 저주맛을 남편》이라는 비난과 조소가 비발했다. 부정부패범죄에서 결코 리명박, 박근혜에게 조금도 짝지지는 않는 홍준표는 가히 《홍돈표》

로 불리우고도 남을만 하다. 가관은 이 모든 범죄들에 대해 《이리가 날고기 먹는줄 모르냐》는 식으로 태연자약한 홍준표의 자세이다.

막말제조기 - 《버럭준표》

사유기능이 마비된 정신이상자 홍준표에게는 또 다른 자랑거리도 있다.

남조선언론이 해마다 제정하고 있는 《올해 깨야 할 입》에 련이 당선되어 《재봉틀상》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이다.

언어는 인간의 지적능력의 총체이며 사유능력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이 록심이 넘도록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권력야욕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홍준표에게서 온전한 소리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까마귀입에서 피코리소리 가 나오기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불망종같은 늑에게 딸을 못 주겠다고 한 장인을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뽀뽀하는 경감대기기를 통아끼고 《우리 당의 당원 이 아니》라고 칼로 베풀 결별을 선언하였다.

그야말로 권력의 동아줄을 쫓아 아첨과 배신으로 생존하여온 홍준표의 첩면피하고 유직한 변신술은 카멜레온도 혀를 찰 정도이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진행된 12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거짓과 배신의 상징으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한 홍준표이고보면 《흥고집》이 아니라 《흥카멜레온》이라고 해야 어울을것이다.

만일 로씨야작가 체호브가 살아있었다면 홍준표를 주인공으로 한 《현대판 카멜레온》을 134년 만에 다시 써냈을지도 모른다.

이런 괴뢰치한이기에 구린내나 번기투쟁을 련상케 하는 주둥이를 벌리지만 하던 그 무슨 《깨끗한 보수》를 떠벌이며 풍파리 굴벌홍내를 내고있는것이다.

변태색마 - 《흥분표》

홍준표는 남조선에서 바람쟁이, 호색광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초등학교때부터 계집질에 미쳐 돌아간 홍준표는 대학시절 자기 친구에게 돼지홍분제를 구해주며 애어린 처녀를 강간하도록 부추기는 놀음도 서슴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도록 술집에 드나들며 주색에 빠져 돌아가다나니 결혼할 때에는 밤 11시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오며 다른 녀자에게 절대 헛웃음을 쫓기는 돈벌레들이었다. 《집권하면 응징하겠다.》... 인간에 대한 병적거부감이 골수에 짙어온 홍준표는 막말대사로 진보와 보수, 여야,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는다.

《에비에미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아직도 (세월)호를 대신에 리용하고있다.》고 체체대며 3년이 넘도록 혈육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의 가슴에 말뚝을 박고 《색갈론》을 붙여대는 미치광이가 바로 홍준표이다.

미일잡종 - 《흥림베》

해피한 이름자만 보아서는 도무지 민족성을 구별할수 없고 발음 또한 얼뜨름한 이 오명에는 홍준표는 조선사람의 허울을 썼을뿐 분명히 미국산과 일본산 이 교잡된 잡종이라는 세인의 평가가 그대로 집약되어있다. 《나는 트럼프를 숭상한다. 나를 흥림프로 불러달라.》, 《반형(미국)의 사랑 잃으면 홍준표는 즉시 자살》, 《나는 사무라이정신을 체질화한 사람, 다시 태어나면 일본인이 되고라.》...

사대와 굴종, 외세의존을 명줄로 삼고 처욕과 망국의 굴레를 쓴 것을 무상의 환희로 여기는 추악한 미숙아가 바로 홍준표이다. 홍준표의 정치생존방식은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섬겨 버리는 대가로 일신의 권력과 명달을 추구하는것이다.

이자는 남조선정계에서 물리를 때마치 마치 시집에서 쫓겨나 본가집으로 달아나는 못난 외눈박이 머느리마냥 미국으로 피난가군 하였다.

지난해 산지사방에서 폭우마냥 쏟아지는 졸육을 면치 못하던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빨갱이 타하는 《흥갱이》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대세에 역행하는 추악한 망동

남조선의 악질보수야당 《자유한국당》의 반공화국도발행위가 계속되고있다. 대표 홍준표가 북부핵실험장폐기와 관련한 공화국의 조치에 대해 《핵실험장폐쇄소》, 《기만》, 《전혀 새로운것이 아니다.》고 시비중상하면서 《지속적인 압박》, 《감랑관의 미꾸라지같은 줄 부가 제법 호기를 부리며 진 부한 《압박》 나발을 부는것을 보면 분노에 앞서 가스room을 굴할수 없다.

조선반도에 새로운 력사,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놓은 4.27의 력사적사변은 지금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를 중상하고 모독하지 못해 말광하는것은 유독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그 두목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

파는 《흥히에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얼마전 명바닥으로 곧 두박질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물을 만회해볼가 하여 제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에 갔다가 북남수뇌회담에 대한 막말을 중단하라는 고향사람들에게 《창녕에 빨갱이가 많다. 그것들을 꼭 때 버리고싶다.》고 고야맨 홍준표에게 날린 어느 한 보수정계의 말이다.

새해정초부터 심술사나운 미친개주둥이에 게거품을 물고 사면팔방으로 빨갱이바람을 일으키더니 결국 제 고향사람들까지 모두 빨갱이라고 몰아가고 제놈은 《홍갱이》가 되고 말았다.

우리의 성의있는 겨울철울림 피경기대회참가를 놓고 《북의 교란전술》,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려는 기도》로 외곡하고 한 피줄을 나눈 동족을 《갈든 강도》로 몰아뜰다못해 전세계가 지지찬동하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위장평화쇼》니, 《무조건적인 핵폐기》니 하고 앞장에서 퍼대를 든구어대고있는것을 보면 별로 이상스러울것도 없다.

허욕대가라고 헛된 욕실에 들뜨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반공화국적대의식과 대결악습이 골수에 짙어온 홍준표의 히스테리적광판은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온 겨레의 치초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민족을 망신시키는 인간오작품》,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규탄의 목소리는 서리밭치고 《자유한국당》내부에서조차 《색갈론으로 지방자치선거운을 치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홍준표를 당에서 내쫓지 않으면 보수가 통째로 망하는 괴멸상황에 직면할것》이라고 아우성치고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에 떨쳐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가야 할대 민족내부에 아직까지 이러한 인간추를, 인간오작품이 살아숨쉬며 발광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과 온 겨레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또다시 동족대결과 전쟁광풍을 몰아오려고 발악하고있는 홍준표와 같은 구우보통시킴이들,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압축존제, 천하의 역적무리들을 력사의 퇴적장에 단호히 처박아야 할것이다.

김춘순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본사기자 주광일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본사기자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하려다 빨갱이개념을 바꾸었다.》

《홍준표가 빨갱이장사

바둑세계의 높은 경지를 터득해간다

* 평양 바둑원에서 *

제로부터 우리 거리는 집 전력과 판질력, 기억력, 상상력, 사고력, 구조적 결합력 등 지적발달과 함께 고상한 도덕성을 키워주는 바둑을 즐겨두어왔다.

오늘날 수가 깊고 다양하여 복잡하면서도 흥미있는 바둑을 어른들만이 아닌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도 즐기 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꼬마바둑명수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는 평양바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박행일지도 교원은 평양바둑원뿐만 아니라 시내의 곳곳에 바둑장과 바둑보급실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바둑출연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 들어서니 꽃잎같은

손으로 영두불을 고인채 두 눈을 깜빡이며 바둑에 열중하고있는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로 마주앉아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에서 돌처리 를 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볼수록 대견했다.

이곳 바둑원에서 한창 바둑을 배우고있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 가운데는 5~7살 밖에 안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중 적지 않은 어린이 들이 아마추어 5~6단과 맞먹는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지도교원의 말은 우

리를 놀라게 하였다.

20여년전 벌써 공화국의 7살난 신수가 제4차 세계아 마추어자바둑선수권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여 파문을 일으킨 사실은 어린이들의 바둑수준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장기가 천수라면 바둑은 만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바둑이 장기를 비 롯한 다른 지능경기에 비해 합리없이 훨씬 많은 변화 를 가지고있고 《최고의 지적경기》로 일러오기에는 행 복 넘친 바둑수동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높은 실력을 터득할 수 있는 지, 이러한 우리의 의문은

보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차 풀려났다.

보급실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능력있는 보급원들이 어린이들과 애호가들에게 바둑의 기초기술과 다양한 수법들을 가르치고있었다.

얼마전 바둑애호가들과 학부형들의 관심속에 평양시범 초등학교 어린이바둑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주목할만한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품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 넘친 바둑수동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현은경

활기를 띠는 경제교류, 발전하는 지식경제



해마다 진행되는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21번째로 열렸다. 전람회가 진행되는 기간 수 많은 참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공화국을 비롯하여 중국, 이란, 몽골 등 여러 나라의 26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는 전자, 기계, 건재, 운수, 보건, 경공업 및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바탕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은 이번 전람회가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의 추동하는 국제적인 회합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드넓은 전람회장은 수백여개의 전시대들이 꽉 들어차 있으며 야외매대들도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이 전개되었다. 전람회기간 기업들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 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와 상담, 제품소개 등 호 상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의 한 기업가는 《정세과에도 끄떡하지 않는 조선의 경제발전력과 발전 속도에 감탄하였다. 조선은 투자조건과 전망이 대단히 좋다. 앞으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한 기업가도 이번 에 많은 기업들과 경제협력과 교류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선경제개발위원회는 이번 전람회를 계기로 나가는 기업들이 수 많은 수출입유한공사, 로닝 기가무역유한공사, 산동 광의달상무역유한공사, 광둥성광주광업유한공사, 장춘시구리유한공사, 유한공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전람회에 계속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기업가 들은 《조선의 과학기술력량은 막강하다. 조선은 국제시장진출능력이 매우 크다. 국제시장에 나가 능히 다른 나라 제품 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람회에는 지식경제강국으로 나아가고있는 공화국의 제품들이 수 많은 수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삼천리조명기술무역회사에서는 전기절약형 각종 LED조명기구들을, 푸른하늘연합회사에서는 새형의 다기능컴퓨터들과 휴대용다매체투영기, 공기음이온발생기, 레드TV를 비롯한 전자 및 전기 제품들을, 메리유향사에서는 마이크로화면노래반주기를 비롯한 음향설비들과 휴대용직접판매기를 내놓았다.

조선연합무역회사, 조선 룡라도무역총회사, 아침 컴퓨터합영회사, 청년 생물공학기술교류사, 홍성 무역회사, 은정대흥무역 회사 등에서도 지식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바다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전시 하였다.

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은 지식경제강국으로 비약해가는 조선의 방면적인 경제교류와 협 조를 강화해나갈 심정을 토로하였다.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는 데서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는 큰 의의를 가지

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역사·문화·유적

약산서운사

국락전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찰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높이 1.28m의 돌기 단위에 세운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그리 크지 않은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은 단정한 건물이다.

둘레에는 10개의 홀림기둥을 둘러세우고 그 우에 안팎이 모두 5포인 포식두공을 얹었다.

대웅전은 장식을 훌륭하게 한것으로 특색이 있다. 특히 나무조각이 우수하다. 두공 자체가 하나의 공예품처럼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룡대가

리 조각, 봉황새대 가리 조각 등이 첨가되어있다. 집안내 모서리에는 나뉘를 펼친 인형조각, 봉황새조각, 연꽃조각 같은것을 놓았다.

이 건물은 단청도 훌륭하게 하였다. 여기 금단청은 눈이 부시게 화려한것으로서 우리 나라 단청미술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한다.

사찰의 세 벽면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으며 두공 사이의 벽에는 라한들을 그렸다. 이러한 조각들과 단청으로 하여 대웅전은 매우 화려하게 보인다.

대웅전서북쪽에 있는 청운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박한 단층배이며 정면만 단익공두공을 얹고 겹처마로 하였다.

대웅전뒤(동쪽)에 있던 응진전은 겹처마배였으며 대웅전동남쪽에 있던 백화전은 정면 6칸, 측면 4칸의 큰 건물이었다.

1682년에 다락건물로 지었다고 하는 설청루는 대웅전 앞에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약산서운사는 오늘도 훌륭히 보존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약산서운사의 전경

국개(國)원(園)화(華)원(園)산(山)

봉이 김선달이야기

봉이 김선달이야기는 조선봉건항쟁의 영웅 김선달의 평양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민화로서 하나의 설화전을 이루고있다. 이 그림은 풍자해학이었던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민족성원들속에서 널리 퍼진것은 기지가 넘치는 그 이야기속에 봉건량반관료제들과 지주와 부자들의 위선과 탐욕, 거드름을 폭로야유하는 사상장정이 반영되어 있기때문이다.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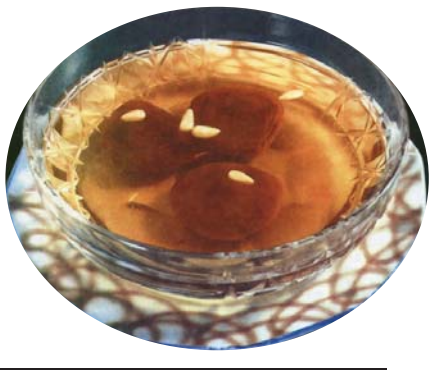
퍼진것은 부자와 지주 등을 상대로 하여 대동강물과 대동강으로 팔아 먹은 이야기, 닭을 봉황으로 팔아 먹은 이야기, 팥포묵을 논으로 판 이야기 등과 개어진 버루를 왕에게 바친 이야기, 왕을 속여 의주 부윤을 뺏은 이야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는 향토적 색채가 농후하고 기지가 빛나며 해학적이며 제마

적인 언어 구사와 기발한 사진 처리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는 두루 전해지는 과정에 더욱더 풍부되고 세련되었으며 많은 변종을 낳으면서 계속 전파되었다. 수백여년동안 전해 내려오는 봉이 김선달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재치있는 구연유산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전통음료 수정과

제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유명한 민족음식들중에는 향기롭고 달면서도 시원하며 독특한 맛을 가진 수정과도 있다. 수정과는 꽃감, 생강, 계피, 사탕, 꿀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료로서 꽃감정과라고도 부른다. 수정과의 원료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B1, B2, E, PP와 칼슘, 인 등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은 약리작용을 한다. 생강과 계피, 잣, 꿀, 꽃감 등 여러가지 재료들을 배합하여 수정과를 만들면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 아미노산을 비롯한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은 피를 맑게 하며 피로를 푸는데서 특효가 있다. 수정과의 기본당 재료로서는 꿀을 리

용한다. 꽃감수정과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꽃감을 세를 뽑아 그릇에 담고 생강과 계피를 배합한 물에 꿀을 탄다. 이 물을 꽃감이 있는 그릇에 조금 부어 일정한 시간 놓아두었다가 내기 전에 나머지 물을 넣고 껍데기를 벗긴 잣알을 뿌린다. 수정과를 만들 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넣고 끓이면 서로의 향미를 감소시켜 지기의 고유한 맛을 살릴 수 없으므로 따로따로 끓여서 식힌 다음 배합하여 리용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가족 사진 (1)

글 김승기, 그림 리성일

잔치집에 초청되었던 사진사는 손님중의 상손님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손님들과는 달리 대접도 소홀치 않게 받는다. 우선 집에 도착하면 주안상을 곁한 점심상부터 받는다. 왜냐하면 대체로 결혼이나 첫돌생일, 환갑과 같은 축하의 의미를 담은 인품대사는 점심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기때문이다. 그러니 레식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사를 미리 식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상은 비록 간단한 듯 해도 실속있는 것이다. 대사장의 맛깔스런 음식이 빠짐없이 사진사의 점심상에 오르는데는 하나의 《관례》이다. 아무리 산해짐비를 차렸어도 역시 후날에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사들은 그렇듯 푸짐한 상을 앞에 놓고도 마음놓고 포식하지 못하는 못한다. 특히 술은 극력 경계하게 되는데 혹시 술에 취하기라도 하면 그날 대사장의 사진을 망가칠 수 있다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다.

그렇다! 부처님 귀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석수쟁이에게 달려있듯이 잔치날 사진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진사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이날, 사진관 사진사 정영만이 이웃 광천리의 초면부지 대사에서(하긴 대사장을 찍어주러 가는 사진사들이 늘 초면부지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듯 성의껏 차려준 점심상을 놓고 《피로와하는》 것은 다만 사진사로서의 이러한 책임감때문이다.

그는 애주가이다. 뿐더러 팬팬은 술실력가여서 어떤 익살꾼으로부터 《아바이는 정말 술 서말을 지고는 못가도 마시고는 가겠수다.》 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다. 이런 그가 여기 광천리의 김명후라는 사람의 집에서 성의껏 차려준 상을 우두투리 앉아 보고만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어제 저녁이었다. 가을비는 가시아버지 턱 밑에서 굶는다고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만난 비를 넘는데 두고 하는 말이 고 영만이처럼 하루종일 포전에 나가있는 사람에게는 가당찮은 말이었다.

우슬을, 벼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며 사진관 안에 들어선 영만은 비에 젖은가봐 비닐로 꿩꿩 붓물질 싸듯 한 사진기를 벗어 풀어 놓고 퇴근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루

종일 배린 비에 이따금 여우 빛이라도 한동안씩 고개를 내밀어 그때마다 원래 계획 하던 나갔던 읍청동농장 혁신자들의 영예사진을 다 찍었다.

이제 레일 출근하는 길로 사진현상작업을 해서 오전중으로 읍청동농장에 나가 그 사진들을 영예게시판에 붙여 줄 생각이었다. 그러던 농장에서 얼마나 기뻐하랴!

사진기앞에 서서 렌즈를 뚫어져라 쏘아보며 《소경이 되지 않았다.》고 긴장해하던 1반의 상고머리총각, 목에 걸여준 꽃목걸이보다 더 붉어진 얼굴을 어디에 건사해야 할지 몰라하던 축산반의 돼지관리공처녀,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어련에처럼 좋아하다가 그제 혁신자영예사진이라고 하니 손을 뻗어 내치면서 《오망》치러 하던 과수반의 중로배, 그들이 비록 사진기 앞에서는 몸돌바를 몰라했어도 영예혁신자가 되었다는 궁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를것이었다.

어느 레비비존련속극이던가? 깊은 밤 자기 이름이 난속보판으로 로진까지 앞세우고 《술가견학》을 오던 평강이 생각났다. 남의 말밖에 늘 오로던 그 평강도 자기 이름이 속보판에 나니 철없는 아이보다 더 기뻐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내가

오늘 한 일이 참 좋은 일이었어...

영만은 자기가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고무하는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궁지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면 이런 그가 레일에는 또 어느 단위의 영예혁신자사진을 찍어줄까 궁리하며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똑똑 하는 문기척소리가 들리더니 비에 함복 젖은 웬 젊은이가 불쑥 들어섰다.

《아밤삼정은 아내래도 날이 개였으면 해가 서산에 사라져버린지 오래 이 시간에 사진관에 찾아든 젊은 손님을

《저의 어머니 80촌 생일사진을 좀 부탁할까 해서...》

젊은 손님이 늦게 찾아온 것이 미안한듯 말을 채워지 못했다. 영만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러니 레일은 대사장사진을 찍어왔구나!

이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물론 그것은 대사장의 흥겨운 분위기만을 넘는데 돈 도락적인 기분이었다. 대사장들마다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장면들에서 영만은 레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락관의 정신을 느끼곤 하였다.

비몽에 폭 젖은 고수머리가 눈에 띄었다.

(20리길을 걸어오느라고...)

그렇다. 정확히 따져보면 광천리에서 여기 읍까지 20리가 좀 넘었다. 그 먼 거리를 비발을 헤치며 오자니 우산을 쓰고도 온몸이 다 젖었다. 지금 전람길을 가리느라고 신은 저장화발도 모를지다 젖었을것이었다. 후출근해준 아내배지가 그를 증명해주고있었다.

《한때 광천리에도 사진사가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모든것이 어디에나 그존하게 갖추어져있는 우리 레도하에서 비록 외진 산골리이라도 광천리에는 없는것이 없었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은 물론 탁소, 유치원, 리발소, 목욕탕, 사진관... 그래서 그곳 농장에서는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그 사진관을 리용한다. 그런데 비 내리는 곳은날 부터 여기까지 찾아올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즐거움을 잠시나마 맛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일이었다.

《집이 어디인가요?》

《광천리 3반마을입니다.》

《뭐라고요?》

영만은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난히,



보자 영만은 의아쩍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찍러 왔다면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무슨 용무로 왔는가요?》

《본사 본연의 친절성을 담아 영만이 젊은 손님이게 묻는 말이였다.》

약치료에 효과가 있는

과학자들이 인삼에 많이 포함되어있는 약용성분인 사포닌이 체내에서 피속에 흡수되면 암의 전이를 방지할뿐 아니라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암의 전이를 방지하는 것은 《M1》로 부르

는 사포닌의 대인삼산물이다. 인삼을 먹으면 체내에서 사포닌이 장내세균의 분비효소에 의해 《M1》로 변화되어 흡수된다.

이 《M1》을 실험용동물에게 먹였더니 몸안의 다른 부위에 전이되는 암세포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암세포가 《M1》과 접촉하면 더는 증식되지 않고 《아로토시스》, 다시말하여 스스로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삼의 주요성분인 사포닌이 암과 당뇨병, 염종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으나 실제로 몸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포닌의 작용기전이 해명됨으로써 제약화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되었다.

본사기자

유모아 두 가지 방안

부부간의 논쟁이 그칠새 없었다. 그래서 안해가 묘안을 내놓았다.

《나의 두가지 방안대로 하면 우리의 논쟁이 끝날거예요. 하나는 우리 둘이 다

내가 맞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은?》

《우리 둘이 다 당신이 틀렸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예요.》